

대각회 자료 DB구축의 성격과 전망

이재수*

• 목 차 •

I. 머리말

II. 대각선과 디지털 전환

III. 대각회 자료의 전산화 사업

1. 백용성대중사총서 발간 및 전산화

2. 제1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

3. 제2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

IV.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 전망

V. 맺음말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

© 『大覺思想』 제40집 (2023년 12월), pp.157-186.

한글요약

백용성 대종사는 근대 시기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헌신하였다. 그의 사상은 대각선에 담겨 있고, 그 실천을 위해 삼장역회를 조직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유포하였다. 대각회는 백용성 대종사의 사회적 실천을 이어온 조직이므로, 대각회의 자료에는 그러한 역사적 증거가 담겨져 있다.

본 논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각회 자료를 전산화하고 아카이빙을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2013년부터 5년 동안 수행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수행한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논의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서 논자는 <대각회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과제로 첫째 대각회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둘째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 운영 기반 마련, 셋째 매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확장성 구현, 넷째 대각사상의 역사적 사회적 확장성을 담은 구술사의 도입, 다섯째 ‘개방형 연결 데이터’를 위한 표준화와 개방성, 여섯째 콘텐츠의 공유와 개방을 보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의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각선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제어

백용성, 백용성대종사총서, 대각회, 대각선, 불교자료 전산화, 대각회 아카이브

I. 머리말

2023년은 진중 용성(震鍾龍城, 1863~1940) 대종사 탄신 16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는 ‘백용성 스님의 大覺禪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세미나에서 용성 선사의 사상과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규명하고 되돌아보는 데만 그쳐서는 안된다. 과거 용성 대종사가 걸었던 길을 ‘대각선’이라고 이름했다면, 현재에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적 노력의 실체를 ‘대각회’¹⁾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각선 실천의 성과를 확산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본 논의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에서 대각회 관련 자료의 DB구축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각사상의 전산화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역사의 발자취를 담아 구축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과 전산화의 성과를 통해 논의의 단초를 삼고자 한다.

둘째는 대각회 자료 디지털화 사업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각회 역사와 운영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과정을 다룬 제1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과 대각회 소속 사찰 현황 전산화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는 대각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디지털화 사업을 수행한 후 향후의 과제로 <(가)대각회 아카이브> 관련 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각선의 사회적 구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출발함을 먼저 고백한다.

첫째, 대각회 관련 자료와 현황과 관련하여 그 전모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것이 아닌 현황 중심의 논의이기에 이는 시론의 성격을

1) 대각회는 백용성 대종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9월 11일에 설립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를 말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대각회’라고 칭한다. (<http://taegak.com>)

갖는다.

둘째, 전산화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한 제언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사견임을 밝혀 둔다. 향후 관련 연구자들과 대각회 관련 사부대중의 실증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 대각선의 사회적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대각선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그 길에 이바지하고 함께하기를 바란다.

II. 대각선과 디지털 전환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 특히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새불교운동의 한 흐름을 주도한 것이 바로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대각교(大覺敎) 운동이다.

『각해일륜』에서는 “대각의 근본적인 심성을 깨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하며, 스스로 깨닫고[自覺] 남을 깨닫게 함[覺他]이 둘이 아니어서 원만”²⁾한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각 본연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즉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이를 향해 함께하는 공동체가 대각교이며, 사회적 실천이 대각운동이다. 그 핵심적인 수행이 바로 대각선이다.

백용성 대종사는 대각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경전을 번역하고, 대중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에 대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한 나침반”³⁾을 삼을 것이라

2) 백용성, 『각해일륜』, 『백용성대종사 총서 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301.

3) 백용성,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 화엄경』 12, 용성총서 6, 동

고 하였다. 삼장역회를 통한 경전 번역과 출간을 통해 포교에 진력하였다.

백용성 대종사는 1927년 중국 길림성 연변에 대각교당을 건립하여 “민중대각화(民衆大覺化)”⁴⁾ 사업을 펼쳤는데, 민중을 깨달음의 주체로 세우고 함께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즉 자각(自覺)의 수행을 통해 각타(覺他)로 회향하여 사회적 실천을 이루는 것이 대각선이며, 그 본질은 참선을 통한 포교라고 할 수 있다.

백용성 대종사가 삼장역회를 결성하여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를 출간하여 널리 펼친 것은 바로 근대 일제 강점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포교 방법이었다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우리 생활의 전면에 영향을 끼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On-tact)이 일상화되고, 우리의 삶이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⁵⁾ 활용하여 사회나 산업체제 전반에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⁶⁾ 디지털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디지털 전환 추진의 원동력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압력, 경쟁 증대에 따른 비용 절감 노

국대학교출판부, 2016, p.449.

4) 村山智順 著, 崔吉城·張相彥 共譯, 「대각교 제창 이유서」, 백용성총서 7,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389.

5) 디지털 기술은 첫째 단계인 디지털화, 즉 다양한 문서, 자료, 사진 등의 아날로그 자료나 정보를 이진법(binary, 0과 1), 언어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디지털화(Digitizing, Digitization)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형식을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 사회에 구현하는 과정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고 부르는데, 정보 처리 과정을 디지털로 전산화하고, 기존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송영근·박안선·심진보,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기술정책 트렌드』 2022-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 p.17.

력, 신기술에 기반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기업 활동의 효율화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⁷⁾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2016~202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⁸⁾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앞서서 이미 대각회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발간과 전산화를 함께 기획하였다. 이는 출판사업의 성과를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사업은 2016년에 완료되었는데, 여기에서 학술토론을 통한 학계의 의견 수렴과 번역 및 운문 작업을 통한 통일성 있는 사상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은 백용성 관련 자료의 발굴과 집성 및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백용성의 저술을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말로 전문가를 찾아서 번역하고, 한문 원문은 우리말로 풀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총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증의 및 운문을 수행하여 원고의 질을 높였다. 대중에게 백용성의 불교대중화, 불교개혁 및 새로운 불교를 향한 대각교운동 등 그의 진면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⁹⁾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은 대각회의 대각사상 현대화와 사회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WEF, 「Introdu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https://reports.weforum.org/digital-transformation/introducing-the-digital-transformation-initiative/>

8) 김종훈, 『디지털 전환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p.2.

9)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 대각사상연구원, 2017, p.41.

Ⅲ. 대각회 자료의 전산화 사업

1. 『백용성대중사총서』 발간 및 전산화

『백용성대중사총서』 발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되었다. 대각회가 주관하고 대각사상연구원,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동국대학교출판부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총서편찬위원회는 2012년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2013년 3월 불교계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사업의 포부를 밝혔다. 조직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회의, 실무회의, 정기회의 등 각종 논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단계별 협력작업으로 학술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연구의 성과를 담았고, 번역사례 검토 및 번역 지침 수립해 번역을 의뢰하였다. 백용성 관련 문헌 발굴의 성과를 분석하고 번역된 원고에 대한 증의 및 윤독회를 통해 원고의 질을 높이고 총서의 통일성을 담보하였다.

『백용성 대중사 총서』의 성격과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용성 대중사 총서』는 백용성 대중사의 유업을 계승하고, 업적을 선양하여 사상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협력 사업의 결과이다. 총서 발간의 과정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자료의 발굴, 입력과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의 토대가 되는 원문 디지털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각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단은 MOU를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29일에 국립정사 용성기념관에서 촬영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 16일~18일 관련 유물을 촬영하여 11,630컷의 이미지를 집성하였다.

둘째,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담았다. 총서편찬위원회는 <『백용성 대중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의 목표를 (1) 백용성 대중사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에 기여, (2) 백용성 대중사 연구 기반의 구축, (3) 백용성 대중사 유업의 계승과 활성화, (4) 백용성 대중사 사상의 대중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백용성 대중사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통한

근대의 고승 및 문헌적 가치에 대한 위상 정립, (6) 한국불교의 근대 문헌을 집성하는 토대 마련 등으로 잡았다.

셋째, 기존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발굴자료를 집대성하였다. 총서의 7권에는 백용성이 직접 기고한 글을 담은 기고문, 신문, 잡지 및 서간문과 용성의 생애를 담은 비문, 문건, 단행본, 유물, 사진 등의 자료를 담았다. 총 9항목 163종 339건의 자료를 발굴하여 담았다. 여기에는 백용성 연구 권위자인 김광식의 힘이 컸다. 신발굴자료는 근대불교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이다.

넷째,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가치를 배가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과 병행하였다. 연보와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여 백용성 관련 연구를 총망라하였다. 내용적으로 번역된 원고에 색인 작업, 총목차와 원전 영인본에는 해제를 달아서 관련 정보를 담았다. 원전은 고해상도로 스캔 및 촬영하였고, 2017년 전산화 사업을 통해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 총서를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이북 등의 포맷으로 서비스하였다. 향후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연계해 확장해 불교 고승 및 근대불교 관련 연구의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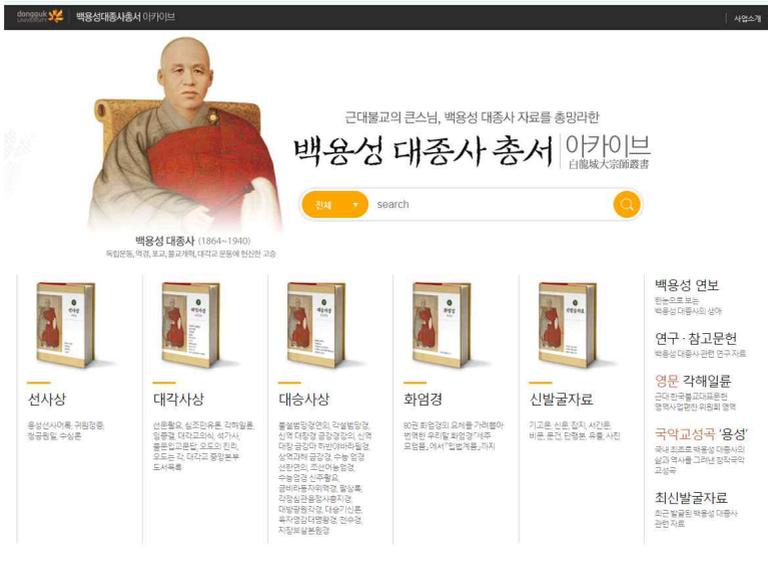
다섯째,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였다. 백용성 관련 원전 연구 및 번역본을 통한 사상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근대불교 및 한국불교 고승의 수행과 관련 인물 및 사건 정보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국불교 고승 관련 자료의 집대성과 원전 자료의 보존 및 이해와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산화를 통해 원전 자료의 보존과 내용적 보완과 확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¹⁰⁾

<백용성대종사총서 아카이브>는 여기에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가 기본 자료로, 부가자료 및 신발굴 자료가 연동하도록 하였다. 총서 텍

10)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 대각사상연구원, 2017, pp.41-42.

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분석 후 RDB 기반 설계를 하였다. 콘텐츠 관리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 수립으로 기획의 방향을 잡았다. 총서의 각각 텍스트 자료들은 XML문서로 전환해서 상세 태깅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판본 pdf 파일에서 텍스트 추출 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이미지 데이터 보정, 분할 및 태깅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http://ys.dongguk.edu/>) 는 상단에 백용성의 진영과 함께 근대불교의 큰스님, 백용성 대종사 자료를 총망라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라는 제목을 달고 검색창을 달았다.

사업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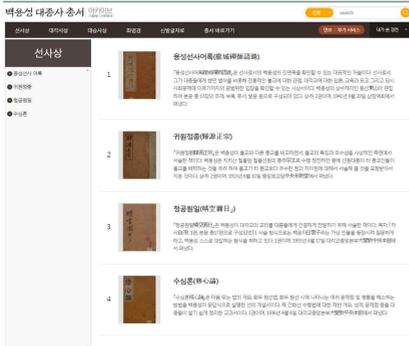
본 사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의 협력하

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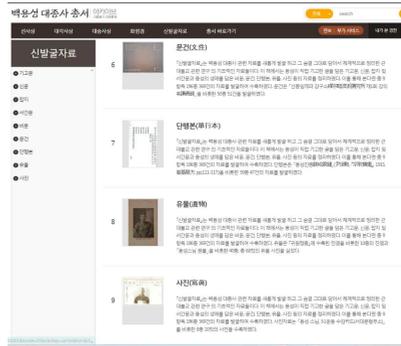
5년간 사업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차에는 사업기획 및 자료의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입력, 그리고 현대어로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 2년 차에는 추가 자료의 수집과 입력, 번역문의 증의와 윤독 작업이 시행되었다. 3년 차에는 원문 이미지 파일과 번역 파일의 집성, 총서의 출판을 위한 1차 편집 및 교정 작업이 수행되었다. 4년 차에는 2차 편집 및 교정 작업을 거쳐 『백용성 대종사 총서』(전20권)가 출간되었다. 또한 총서의 Data Base와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작업도 이루어졌다. 마지막 5년차에는 DB 및 검색 시스템 구축작업이 수행되어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다.¹¹⁾

아카이브의 총서 목차화면과 신발굴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2> 목차 화면



<그림 3> 신발굴자료 목차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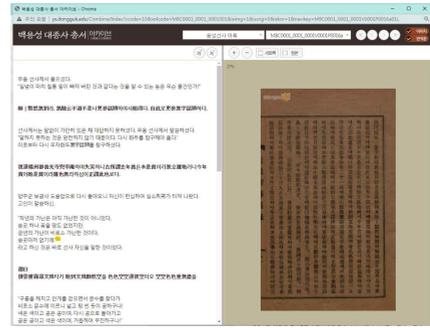


11)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 사업 소개
<http://ys.dongguk.edu/Home/Intro>

<그림 4> 용성선사어록



<그림 5> 원문과 번역문 함께 보기



주요 메뉴로 사상별로 총서를 볼 수 있는 총서 부분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눈으로 보는 백용성 대종사의 생애를 담은 <백용성 연보>, 백용성대종사 관련 연구 자료를 정리한 <연구·참고문헌>,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사업편찬 위원회가 영역한 <영문 각해일륜>, 국내 최초로 백용성 대종사의 삶과 역사를 그려낸 창작국악 교성곡인 <국악교성곡 '용성'>, 총서 발간 이후 최근 발굴된 백용성 대종사 관련 자료를 담은 <최신발굴자료> 등 부가 정보를 담았다.

2. 제1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

1)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기획

1969년 6월 30일 재단법인 대각회의 창립 이사회(총회)를 열고 1969년 9월 11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허가번호 제158호)를 받았다. 1997년 대각회 산하 대각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1998년 3월 13일 대각사상연구원 개원식 및 기념학술 세미나 ‘백용성 스님과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통해 대각회의 대각사상과 대각선의 사회적 실천과 확장의 토대를 세웠다.

2020년 7월 20일 ‘한국정토학회’를 법인 산하 학술단체로 등록을 하

면서 대각회의 학술적 입지와 대사회적 실천의 방향이 확고해졌다.

2021년 9월 11일 대각회 이사장에 무심 보광(無心普光)스님이 취임하였다. 보광 이사장은 대각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각회 자료 전산화를 제안하였다. 2021년 10월 28일 <(재)대각회 자료 전산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제1차 (재)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행하였다.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각회 관련 제반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보존에 기여한다. 대각회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구축한 제반 자료를 보존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의 분류 및 색인 작업을 통해 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대각회는 초창기부터 생산한 다양한 문서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목록과 색인을 구축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한다. 여기에서 대각회 자료는 대각회 운영의 성과를 담은 업무 자료이다. 그 성격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엄격한 자료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 일정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 제1단계로 사업 설계 단계이다. 이는 2021년 12월까지로 사업의 기획부터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였다.

- ① 대각회 자료 전산화를 위한 수행 조직 구성 및 작업 설계
- ② 대각회에 보관된 다양한 성격의 자료 분석 및 작업량 산정
- ③ 시범 작업 수행 후 평가(디지털 자료의 품질 보증) 등이다.

둘째, 제2단계로 대각회 자료 스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이는 5~6개월 정도로 잡았다. 이때 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잡았다.

① 대각회 자료의 반출 및 문서의 정리 작업은 대각회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다.

② 자료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해 대각회 사무국의 승인하에 자

료의 스캔작업을 수행한다.

③ 검수 작업 수행 후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셋째, 제3단계로 대각회 자료 색인 및 정리 작업이다. 이는 작업의 완료 이후 크게 4~5개월로 잡았다. 이때 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잡았다.

① 1차로 대각회 자료의 분석 및 분류를 수행한다.

② 2차로 작업 대상별 색인 작업을 수행한다. 각 문서 성격에 맞는 색인 입력 작업을 한다.

③ 3차 작업으로 결과 정리 작업, 즉 문서 목록, 디지털 파일 목록 등을 정리한다.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용성대중사 유훈의 시대적 계승과 한국불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대각회 자료는 백용성대중사 유훈 실천의 역사적 증거이므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통해 대각사상을 실천하고 사회적 소통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한다.

둘째, 대각사상의 사회적 실천 결과물인 역사문화 자료를 구축하고 보존한다. 대각회 자료는 대각사상의 사회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전산화를 통해 훼손, 멸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대각회 사무국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화된 자료의 분류 및 색인 작업을 통한 사무국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재)대각회 자료 전산화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회,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스캔작업, 조사작업, 색인작업팀 등 3팀으로 운영하였다.

스캔작업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성하였다.

- ① 편철된 자료 인수 및 해체 ② 낱장 스캔
- ③ 파일 네이밍 ④ 검수 작업
- ⑤ 작업 폴더 생성 후 저장 ⑥ 자료 복원 후 정리, 재편철

조사·색인작업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성하였다.

- ① 디지털 파일 인수 ② 디지털 이미지 파일 네이밍
- ③ 자료 관독 후 메타 데이터 입력(자료 분류는 대각회의 문서 분류 기준 준용)
- ④ 자료 색인 입력 ⑤ 검수 작업
- ⑥ 자료 분류 작업 후 네이밍 추가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의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이다.

첫째, 대각회 자료의 내역을 검토한다.

둘째, 보관 현황 및 컴퓨터 관리 현황을 검토한다.

셋째, 분류체계는 우선 대각회 자료의 분류는 사무국에서 업무효율과 사업 운영에 편리한 방법대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2)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성과

전산화 작업을 통해 조사한 조사항목 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고 활용이 가능한 내용 선정한다.

둘째, 누구나 이해하고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 선정한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조사 항목은 ID(작업ID, 분류ID)와 내용은 제목, 내용, 수발신, 발행사항이 있고, 첨부문서, 수량, 주기상세 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 1> 조사 내역 예시(공문)

구분	내역	내용 설명	예시
형태	작업ID	작업일시_구분_순서	20220105_편철2_0001
	분류ID	대분류_중분류_소분류	공문_인사_1992
	스캔ID	스캔 시작 번호	20211213_0003
스캔 종료 번호		20211213_0020	
내용	자료구분	자료의 성격 구분	공문
	문서번호	문서에 기재된 번호	대각인비제261호
	제목	문서 제목	주지임명에 관한 건
	내역(안건)	세부내역(회의 안건)	주지임명에 관한 건
	수신처(주소)	수신처의 주소(도, 시, 구(면))	경기 ○○시 ○○사
	수신자	문서 수신자(참석자), 성명(법명)	박○○(법명)
	접수일	년.월.일	1992.09.24
	발행처	도, 시, 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발행자	사찰명(대표자)	대각회(광덕)
	발행일	년.월.일	1992.09.24
첨부	첨부건수	문서 건수	6
	첨부면수	첨부문서별 면수 문서별 구분은 ;	1:9;1:1:1:2
	첨부내용	첨부 문서 내역	1.이력서; 2.호적초본; 3.신원증명서; 4.취임승낙서; 5.추천서; 6.민간인신 원진술서
수량	면수	전체 문서의 면수	17
주기상세	주기상세	기타 내용	

또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조사하는데 항목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내역 예시(기사)

구분	내역	내용 설명	예시
형태	작업ID	작업일시_구분 순서	20220115_0001
	분류ID	대분류_중분류_소분류	신문_대한불교_1960
내용	발행지	신문명(잡지명)	대한불교
	발행처 (url)	발행처 (인터넷 기사일 때 url)	대한불교사
	발행일	년.월.일	1960.01.10
	수록면, 단	수록면, 단(시작)	3,4
	저자	기자, 투고자 성명	김동국
	기사명	기사 제목	대각사 범회 성료
	사진	사진(간략설명), 없는 경우 ×	대각사 전경
주기상세	주기상세	기타 내용	용성대종사 제자 고봉스님 초청 법회

본 사업을 통해 2022년 4월 말까지 대각회 문서 스캔 작업 1차 완료한 문서 이미지 94,648컷을 스캔하고, 목록 입력 9,537건을 입력하였다.

2022년 6월에는 공문별, 문서 성격별로 분류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1차 완료하고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수정 요구를 하여 보완작업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본 사업의 결과 스캔 작업한 문서는 대각회 사무국에서 분류한 문서철에 따라 31권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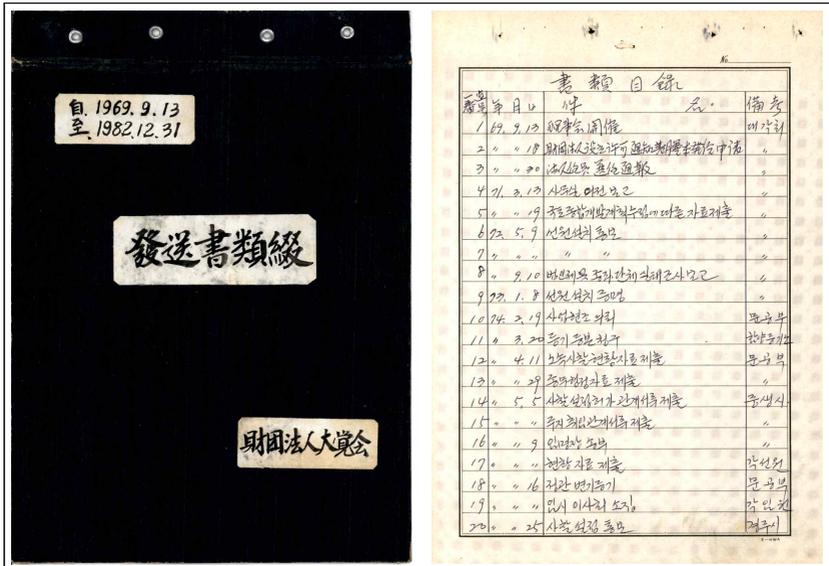
<표 3> 대각회 문서철 항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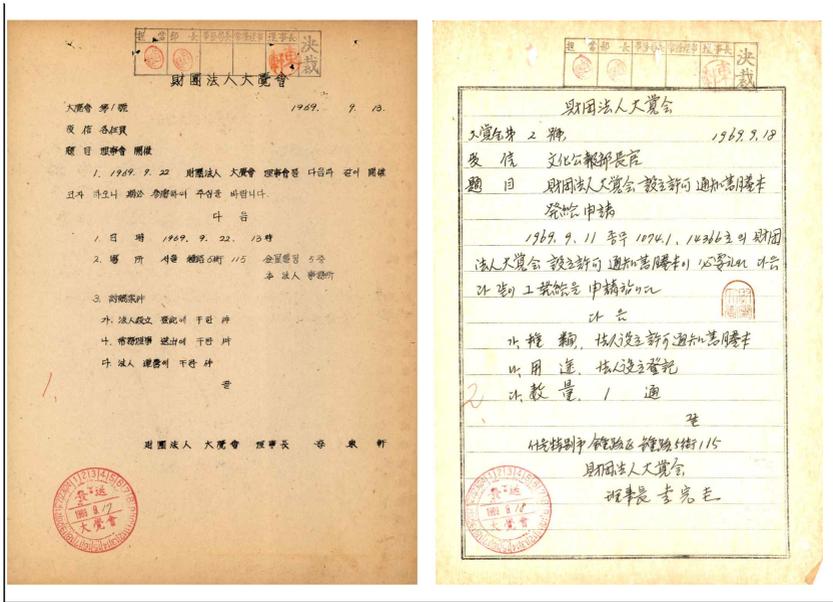
1.인사	11.불광사 창건주 승계 관련	21.행자관계철
2.부동산등기필증	12.접수서류철	22.어린이집,유치원관련
3.화과원관계서류	13.회의록	23.원홍사
4.기부금	14.사무지침 회의록	24.출협서류철
5.사찰설립	15.제증명	25.종단관계

6.재산관계 7.법인관계 8.보고서 9.발송서류철 10.참고서류철 (창건주/인증서/공 증/각서/기타)	16.신분증발행대장, 인감대장 17.백용성조사 생가 복원건 -죽림정사 18.납골당관계 19.출장복명보고서 20.납본철	26.법원관계 27.법률자문 28.대각교회중앙분부 29.품신서 및 기안서 30.대각사상연구원(총서) 31.기타신청서
----------------------------------------------------------------------------	----------------------------------------------------------------------------------	---------------------------------------------------------------------------------

각 항목의 문서철의 각 목록은 위에서 정리한 조사항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사무국에서 관리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다. 구분된 문서별 항목 수와 작업 면수는 다음과 같다. 즉 동일한 문서는 1건으로 하여,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pdf파일로 전환하여, 폴더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6> 스캔작업을 한 결과(발송철, 표지, 목차, 공문1, 공문2)





이상과 같이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결과 11,123건의 문서를 스캔 작업하여 97,594면의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입력하고, 이를 항목별로 pdf파일로 생성하여 31개의 카테고리에 목록별로 넣어서 보관하였다.

이를 통해 사무국에서 안정적으로 디지털 파일로 모든 문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제2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

대각회에서는 제2차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으로 ‘(재)대각회 사찰 현황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재)대각회 사찰현황 전산화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찰현황 전산화 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수립하였다.

첫째, 대각회 소속 사찰의 정보 현황 파악 및 디지털화를 통해 문화재의 멸실을 방지하고 보존에 기여한다.

둘째, 대각회 소속 사찰별 정보 현황 파악 및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증대한다.

셋째, 정보대장 및 디지털 자료는 향후 대각회 및 산하 사찰의 홈페이지 제작, 또는 2차 저작 콘텐츠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으로 원천자료를 획득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단계로 추진을 하였다.

첫째, 제1단계는 사업 설계로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준비하였다. 이때 3가지를 준비하여 추진하였다.

- ① 대각회 사찰현황 전산화를 위한 수행 조직 구성 및 작업 설계
- ② (재)대각회 소속 사찰 및 현황 자료의 분석 및 작업량 산정
- ③ 시범 작업 수행 후 평가(디지털 자료의 품질 보증)

둘째, 제2단계는 대각회 사찰현황 조사 및 촬영 작업 단계이다. 대각회 소속 사찰의 촬영 협조는 대각회 사무국이 협조를 구한다. 촬영 작업은 문화재 전문 사진 촬영업체인 스튜디오 맥을 중심으로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결과는 검수 작업 수행 후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셋째, 제3단계는 대각회 사찰현황 색인 및 정리 작업이다.

- ① 1차 대각회 사찰 촬영 및 조사 자료의 분석 및 분류
- ② 2차 사찰별 현황 정리 작업(조사 항목 검수)
- ③ 3차 작업 결과 정리 작업(문서 목록, 디지털 파일 목록)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4〉 사찰현황 조사 양식 예시

기본 현황	사찰명	대각사(大覺寺)	구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	전화	02-765-0972-3
		[03134] 서울 종로구 율곡로10길 87	팩스	02-742-2126
	전통사찰	제1-5호 지정일 1988.07.25	메일	daegaksa1234@naver.com
	홈페이지 (블로그)	http://daegaksa.kr/	템플 스테이	×
	연혁	- 1911년 용성(龍城) 진중(震鍾) 대종사가 창건 - 1928년 대각일요학교가 설립 - 1930년 대각성전과 요사채 신축 - 1939년 대한불교선종총림으로 명칭 변경 - 1944년 경성포교당 대각선원으로 명칭 변경 - 일제가 강제 폐교 - 1969년 동헌완구 대선사를 비롯한 용성의 제자들이 대각교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각회 설립 - 1986년 대각사 경내 건물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400평의 신축건물로 면모를 일신함 - 현 주지 종원스님		
	설화	(생략)		
	문화 행사	용성진중조사 탄신제 2022년 6월 6일(음 5월8일)	관련 인물	창건주 : 용성대종사 중창주 :
		용성진중조사 열반 추모다례제 2022년 3월 26일		
	기타			
건축 현황	건물 수	0 동	주전각	대각성전
	각 전각별 현황	대각성전 : 팔작지붕, 3층 건물(1층 : 선방, 종무소, 사무실 2층 : 요사채, 3층 : 법당) 일주문, 범종각, 심검당 등		
성보 현황	지정 문화재	0점(*별지의 수량과 동일하게 작성함)		
	성보 문화재	0점(*별지의 수량과 동일하게 작성함)		
특징	1911년 용성진중 대종사가 창건한 도량, 1919년 백용성스님, 한용운스님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만든 31운동 독립진원지임.			
조사 일	2022.0.0.	조사자	000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용성대종사 유훈의 현대적 확산에 기여한다. 대각회 성보는 백용성대종사 유훈 실천의 역사적 증거이므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대각사상을 실천하고 백용성대종사의 유훈을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여 계승하도록 이바지한다.

둘째, 대각사상의 사회적 결과물인 성보는 역사적 종교문화의 산물이므로 자료 구축과 보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각회 성보는 대각사상의 사회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전산화를 통해 훼손, 멸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존에 이바지한다. 분류 및 색인 작업을 통한 업무효율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복합적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불교문화 역량의 대사회적 확산에 기여한다. 한국불교의 문화역량을 대각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대각회 성보문화재의 활용의 기반은 현시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사팀은 사전조사(사무국 협조) 및 현장조사 후 정리
- ② 촬영팀은 각 사찰의 건물 현황 및 성보문화재 촬영
- ③ 촬영 결과 형태별 분류 후 네이밍 작업
- ④ 조사요원은 각 항목 조사 및 기록작업
- ⑤ 작업 폴더 생성 후 저장
- ⑥ 검수 작업
- ⑦ 목록, 조사목록표, 작업 파일 제출

본 사업의 작업 대상은 대각회 소속 사찰이다. 현재 대각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각회 등록 사찰을 검색할 수 있다.¹²⁾ 현재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대각회 사찰은 다음과 같이 148개소이다.

12)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대각회 사찰현황 (2023.9.15. 검색)
http://www.daegak.org/bbs/board.php?bo_table=sachal

<그림 7> 대각회 홈페이지, 대각회 사찰 현황



2023년 5월 말 현재 조사 대상 사찰 가운데 136개소의 사찰의 촬영이 완료되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개별 사찰을 방문하여 촬영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간과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다. 사업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 전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사진 촬영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대각회 사찰 현황표가 완성되고, 정보 목록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IV.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 전망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논자는 <(가)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카이브는 기록을 보존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정보 지식 체계의 복합체를 말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 “아카이브”란 문화유산의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민간분야의 기관·단체·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대여 등의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¹³⁾

이를 통해서 본다면, 대각회가 그동안 수행해 왔던 일련의 사업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 사찰 현황 전산화 사업 등은 바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이미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가)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대각회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백용성 대종사의 사상의 결정체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에 집결되어 발간되었다. 대각사상의 사회적 실천의 성과는 현재 대각회의 현황에 담겨져 있다. 아울러 대각회의 미래와 백용성 대종사 유훈의 실현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의 집합체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화유산을 아카이빙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창조와 새로운 지식 생산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과제를 도출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인물 아카이브의 한 모델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텍스트 중심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내용성을 확장해야 한다. 백용성 총서는 대각사상의 근간이 되는 백용성의 저술과 자료 중심이다. 이 아카이브는 1차 자료 중심으로, 이러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들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 1차 자료를 근

13)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시행 2018.7.24.] [문화재청훈령 제467호, 2018.7.24., 제정]

간으로 생산되는 백용성의 문손들이 대각사상을 실천한 결과와 관련된 기록들이 정리되고 수집되어야 한다. 향후 다양한 연구 성과를 더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둘째, 아카이브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텍스트 중심의 저술, 자료가 중심이다. 대각회 사찰 현황은 진영, 유물을 비롯한 건물 등 복합적인 자료가 있다. 이는 이미지와 영상을 비롯한 복합적인 자료가 결합될 것이다. 향후 대각회, 사찰, 문화유산 등 이미지의 체계적인 발굴과 수집을 통해 다양한 포맷의 자료가 구축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매체가 확장되는 경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넷째, 대각사상의 역사적 사회적 확장을 담은 구술사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대각사상의 확산은 백용성 대종사의 제자와 문손, 나아가 대각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의 구술자료를 통해 역사를 정립해야 한다. 다양한 구술자료의 생산과 정리를 통해 후손들의 기억속에 내재된 대각사상의 확산을 역사자료로 구축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상호 교차 대조와 역사적인 비평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대각회 아카이브의 다양한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와 개방성을 구비해 다양한 아카이브와 연계되고 확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모든 자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연계되어 검색되고 확장이 가능하다. 앞으로 다양한 아카이브 및 공개된 연결정보와 함께 서비스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8>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의 백용성대종사총서 목록

번호	제목	저자	권수	발행처	발행년	소장처	담당정보	부가정보
1	백용성사주축(白龍聖師遺稿)	白龍聖師 撰	2	불교출판	1941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2	귀명당종통정(歸鳴堂宗統正)	白龍聖師 撰	2	白龍社	1913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3	장유동유체(張維洞遺稿)	張維洞 撰	3	어림출판	1939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4	유선촌서문(柳仙村書文)	어림출판	1	어림출판	1936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5	선영동유체(仙影洞遺稿)	어림출판	5	어림출판	1924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6	심곡산유체(心谷山遺稿)	어림출판	1	어림출판	1922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7	각백일승종통정(各百日僧宗統正)	어림출판 編	4	어림출판	1930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8	일승종통정(日僧宗統正)	어림출판 編	3	어림출판	1936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9	대각교사주축(大覺師遺稿)	어림출판 編	1	어림출판	1931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10	서사주축(西師遺稿)	어림출판 編	2	어림출판	1936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11	백용성대종사총서(白龍聖師遺稿總書)	어림출판 編	1	어림출판	1913	죽형당사	백용성 (이재사)	ABR

<그림 9> '대각' 검색결과 근대불교 문헌(654건)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에서 '대각'을 검색하면, 근대불교문헌(백용성대종사총서)에서 654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¹⁴⁾ 각 문헌별로 해당 하는 부분을 열람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멀티 필터 기능을 통해 필요한 부분의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

14)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검색 > '대각'

<https://kabc.dongguk.edu/search/group?q=query%24대각>

분은 자료의 연계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여섯째, 대각회 아카이빙 콘텐츠는 공유와 개방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정보의 재 가공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각회 아카이브는 대각사상이 담긴 『백용성대종사총서』는 물론 다양한 이미지를 주제별, 내용별로 콘텐츠를 새롭게 가공하고 재생산하여 연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해야 한다.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을 표시하여 개방한다. 이렇게 될 때 대각회 기록은 공공 콘텐츠로 한국 불교문화 구현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대각사상의 자유로운 활용과 무한 확산 및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각회 아카이브에 담겨질 다양한 정보들이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정보 자료의 현재성을 반영하여 살아 숨 쉬는 아카이브가 될 때 대각사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백용성 대종사 유훈의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은 대각사상의 디지털 전환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대각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대각선의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백용성 대종사는 대각선의 사회적 실천의 결과를 우리말로 누구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삼장역회를 통해 조직적인 번역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경전을 유포할 수 있는 경전 출판작업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당시 최선의 포교활동으로 대각교당에서 풍금을 연주하고 새로운 찬불가를 불렀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의 전통이 바로 대각회에 이어졌다고 본다. 대각회 산하에 대각사상연구원을 중

심으로 수행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은 대각회의 대각사상의 현대화와 사회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 사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의 협력 하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었다. 5년 동안 『백용성 대종사 총서』(전20권)가 출간되었고 총서의 DB와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2021년 대각회 보광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각회 자료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022년 대각회가 활동한 성과의 공문서를 스캔하고, 목록을 정리하였는데, 11,123건의 문서를 스캔 작업하여 97,594면의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입력하고, 이를 pdf파일로 생성하여 31개의 카테고리에 목록별로 넣어서 보관하였다.

2022년 9월부터 ‘(재)대각회 사찰현황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대각회 소속 사찰과 성보 현황 디지털화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후 대각회 관련 홈페이지 제작, 2차 저작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원천자료 획득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서 논자는 <(가)대각회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대각회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고, 둘째 아카이브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확장성을 구현하고, 넷째 대각사상의 역사적 사회적 확장을 담은 구술사의 적극적인 도입을 해야 하며, 다섯째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와 개방성을 구비해야 하고, 여섯째 대각회 아카이빙 콘텐츠는 공유와 개방을 적극 보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대각회 아카이브 구축 및 웹서비스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널리 서비스되고 이용되어 대각선이 사회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백용성, 『각해일륜』, 백용성대종사 총서 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백용성, 『조선글 화엄경』 12, 백용성대종사 총서 6,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村山智順 著, 崔吉城·張相彥 共譯, 「대각교 제창 이유서」, 백용성대종사 총서 7,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김중훈, 『디지털 전환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 송영근·박안선·심진보,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기술정책 트렌드』 2022-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
-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 대각사상연구원, 2017.
-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시행 2018.7.24.] [문화재청훈령 제467호, 2018.7.24., 제정]
- WEF, 「Introdu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https://reports.weforum.org/digital-transformation/introducing-the-digital-transformation-initiative/>
-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http://ys.dongguk.edu/>
-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검색 “대각”
<https://kabc.dongguk.edu/search/group?q=query%24대각>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대각회 사찰현황
http://www.daegak.org/bbs/board.php?bo_table=sachal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Daegakhoe Data DB Construction

Lee, Jae-soo

(Associate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Baek Yong-seong(白龍城) dedicated himself to restoring the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and establishing his identity during the modern period. His thoughts are contained on the Daegakseon(大覺禪), and for that practice, a Samjang Yeokhoe(三藏譯會, the Association for Translation of the Tripiṭaka) was organized and the scripture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distributed. Since Daegakhoe(大覺會) is an organization that has continued Baek Yong-seong's social practice, the data of Daegakhoe contain such historical evidence.

This discussion looked at digitalizing the data of the Diagonal Confere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Korean Buddhism through archiving. First, the results of the project to publish '*A Collection of the Great Master Baek Yong-Seong*', which was carried out for five years from 2013, were examin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discussion. Next,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the 'Daegakhoe Data Digitalization Project' carried out since 2021 were discussed.

Through this discussion, the author proposed building a <Daegakhoe Archives>. The tasks for this are, first, establishment of a long-term master plan for the continuou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aegakhoe cultural heritage, second,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archive operation, third, implementation of scalability to cope with changes in media, and fourth, introduction of oral history that will contain the historical and social expansion of Daegak ideology, fifthly, standardization and openness for 'Linked Open Data', and sixthly, ensuring sharing and openness of content, etc. were proposed.

This discussion aims to contribute to social diffusion through diagonal practi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Key words

Baek Yong-seong(白龍城), *A Collection of the Great Master Baek Yong-Seong*, Daegakhoe(大覺會), Daegakseon(大覺禪), Digitalization of Buddhist Data, Daegakhoe Archives

논문투고일 : '23. 10. 27. 심사완료일 : '23. 11. 22. 게재확정일 : '23. 11. 22.